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옥 순례 ①

그런데 지옥은 아귀나 아수라가 그런 것처럼 인간계의 어떤 곳 까지도 슬며시 이어져 있는지 모른다. 지장보살이 보살로서는 가장 비장한 서원을 하고 간 지옥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아비지옥-무간지옥-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탐욕은 인간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살인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불가촉천민의 그 극빈과 질병 그리고 끝없이 감당해야 하는 억압과 중노동의 현장을 그 첫걸음으로 삼은

그들은 허공 중의 습기가 자아낸 아주 작은 이슬방울로 만든 차를 한 잔씩 마셨다. 차 한 잔으로 맛감을 함께 살아온 것처럼 서로 친밀해졌다. 그것은 이쪽이 빛이 지옥을, 저쪽의 빛이 이쪽을 비추는 일로 어우러지는 그런 기쁨을 낳았다.

"함께 중생 가운데로 갑시다. 보살이란 중생없는 보살도, 보살의 옷자락도 아니겠지요."

"갑시다."

"갑시다."

함두가 춤추는 것처럼 앞장섰다.

지옥의 첫번째가 등락지옥이다. 그곳의 하루 24시간은 인간계의 9백만년에 해당한다. 길고 긴 시간의 단위인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은 그곳 시간으로 5백년의 형기(刑期)를 채워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 인간계의 시간 1초(백25년)나 걸리는 셈이다.

이런 긴 시간의 고통은 상생을 한 죄업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산 것을 죽이는 일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사삼 밖에 없다면 이 상생죄로 인한 이곳의 고통은 결국 사람부터 단죄하는 것이 그 목적인가.

여기서는 말대거리 육종이 쇠뿔뿔이 사정없이 내려쳐 사람 형상의 지옥중생은 그 몸이 박살나고 만다. 그런 몸뚱이 잘 말고는 칼로 살을 난도질하는 고통도 받게 된다.

물론 이곳의 중생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들끼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 싸움으로 그곳에서의 살생죄를 짓는 일도 많다.

과연 지옥중생은 그만큼 살벌한 성정을 보여준다. 누구나 다 그런 살벌함 때문에



131

이겠는가.

그런 서늘한 바람이나 찬바람이 아니더라도 옥졸 쇠대거리나 말대거리가 쇠칼 쿵쿵 바닥을 두들겨 깨어나거나 공중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내어 깨우거나 해서 다시 살아난 그 중생은 어떤 기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다시 쇠뿔뿔이로 피투성이를 만들거나 온몸을 핏기 찌르기로 칼질을 하는 것이다.

등활(等活)의 뜻은 그렇게 토막토막으로 살아났다가 고통끝에 죽어야 함이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살아난 한 중생에게 무전보살이 물었다. 그러자마자 그 중생이 "이따위 새끼가 주둥이를 달고 뭘 중얼거리는 거야. 이 새끼가" 라는 욕

시거면 빗발의 먹줄은 대개 목수들이 집을 짓기 위해 재목에 먹줄을 쫓겨 직선을 긋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 먹줄 빗겨진 직선을 따라 흙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먹줄이 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의 몸이 그려지는 것이다. 가로 세로 열십자로 네모를 칸을 만들어 온몸 몸뚱이까지 바둑판처럼 먹줄이 그려진 다음 이곳 옥졸들은 그 먹줄 선을 따라 쇠도끼나 톱으로 절단하는데 그런 형벌의 과정에서 생겨난 주사위와 비슷한 살덩어리가 피투성으로 흩어지는데 그 악형의 고통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다.

비록 도끼로 쪼개거나 톱으로 썰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근으로 묶인 몸 자체가 받는 그 뜨거운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을 모를 정

"아직은 손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짓거리인가요"
보살일행은 지옥광경에 망연자실했다

함을 퍼부어졌다. 무전보살은 일단 물러났다. 그 함상국은 등락지옥의 중생을 함부로 가까이하여 재도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노릇이었다.

불이보살이 그런 무전보살을 데리고 저만치 갔다.

"아직은 우리가 손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무전이 불명소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저렇게 해골바가지가 터져 골수가 쏟아지고 피범벅이 되도록 맞고 찢리는 고통을 그대로 구경이나 하는 것이 우리 보살들의 짓거리란 말입니까."

"자 함께 갑시다" 라고 함두보살이 나섰다. 등락지옥 밑에는 흑승지옥이었다.

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끼질과 톱질 그리고 뜨거운 쇠줄로 묶이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높은 바람과 바람 사이에 쇠줄이 걸려 있다. 그 쇠줄 밑으로는 아스라하게 뜨거운 불이 쾅쾅 끓어대고 있는 커다란 가마가 있다.

흑승지옥에 온 중생은 그 쇠줄을 타는 위태로운 곡예의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곡예를 잘하는 중생이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어김없이 쇠근 중간에 와서는 발을 헛디디게 되어 있다.

그 천길 밑의 끓는 불 쇠가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빠진 중생의 몸뚱이가 튀겨지는 고통이다.

"중생 가운데로 함께 갑시다" 불이는 흑승지옥서 한 중생을 ...

것은 거의 틀림없었다.

함두보살이 무전보살의 말에 한마디 대꾸를 준 것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였다.

"지장보살은... 아마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투로 흠에 박히기를 바라지 막대기로 물어 떠다니는 것을 바라지 않는 보살이기에..."

"그들에게 다가온 보살은 사바세계 승신주에서 인간노릇을 한 보살이어서인지 키가 유난히 크기도 하였다.

"나는 파우라 합니다."

삼부주의 수많은 말보다 그의 말은 아주 높은 음정이었다. 그 키와 그 몸집은 꼭 땅이라도 꼭 깨지도록 우람한데 정작 그런 몸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세소리에 가까웠다.

불이, 함두, 무전보살은 그의 티끌없는 마음씨가 환히 보이는 듯한 파우보살을 정경으로 맞이하였다.

결핍하면 싸움이 나고 그 싸움 끝에 누군가가 죽게 되는 것이다.

불이보살을 비롯해서 함두 무전보살과 전생 승신주에서 살다가 보살로 화현(化現)한 파우들이 그들이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의 벗으로서 이곳에 온 것은 당연하다. 쥐가 쥐구멍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은 이 등락지옥의 무덤과 습기 많은 지옥에서 맨먼저 그곳에 와있는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이보살은 전생에 익힌 화염경의 한마디도 정작 이곳에서는 파초 일사귀 너 홀거리는 한가한 미풍의 마당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삼천대천세계의 겨자씨만한 어느 곳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런 말이 지극히 경건한 것일수록 이 지옥의 현장에서 쇠뿔뿔이에 얽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울부짖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실감도 없었다.

오로지 이곳에서는 끝없이 온몸이 박살나는 아픔과 함께 난도질 당하는 아픔만이 이어질 따름이었다.

불이보살 일행은 이곳에 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이 망연자실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의 방과 바닥에서는 피투성이가 쓰러진 중생도 있고 쓰러지기 직전의 중생도 있었다.

그런데 불이보살은 그런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거기서 일정한 운율(韻律)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영망진장의 형벌로 된 혼돈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한 음악에 가까운 법칙이 있었다.

일단 쇠뿔뿔이에 얽어맞거나 칼에 마구 찢리거나 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게 되

는 그런 고통 뒤의 중생은 의식을 잃고 죽게 된다.

바로 그때 그렇게도 무더운 그곳에 한 갈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다.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널부러진 피투성이가 망가진 사체에 다시 제대로 손발이 생기고 알아볼 수 없게 된 머리통에 눈과 코와 귀 그리고 입이 생겼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조차 잊어버렸는지 빙그레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과연 생명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서늘한 바람이 조금 뒤 찬바람으로 바뀌어지며 죽었던 중생이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일어섰다.

아마도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나 살아나기를 벌써 몇천만번 몇억만번이나 한 모양이지만 그 중생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살려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어디

이곳은 도둑질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천당이었다.

그런 큰 깨달음이 서 있는 것 같았으나 그 깨달음을 누군가가 가려서 더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함두보살만이 그 깨달음의 끝까지 보았다. 그 끝자는 벌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었으나 보살들은 읽을 수 있는 글자인 것은 분명하였다.

소유에 사로잡힌 도둑질. 아니 소유의 의미 자체가 이미 도둑의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든가. 물론 절도나 강도와 함께 소유 자체도 도둑질이라는 마친가지이다.

이곳 흑승지옥은 많은 강도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기형의 적(鐵賊)은 오지 않는 대신 권세를 주름잡는 대신이나 사또들 그리고 백성의 피를 빨아댄 아전들은 영락없이 와 있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독 소유욕이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방에서는 쇠줄 그물이 불에 실컷 달구어져 그 그물에 형벌 받아야 할 중생을 말려뜨려서 그 뜨거운 쇠줄그물이 옥죄어오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부채질까지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이틀이면 12조천만년동안이나 토막내는 처형이 한 중생의 몸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불이보살은 바로 이 흑승지옥에서 전생 인간계의 어느 곳에서인가 만난 적이 있던 중생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중생은 한 고통만한 맘을 독차지함으로써 많은 소작인과 노비를 부리던 전직 감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동생을 두고 하여 역적으로 죽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조명, 시설 등을 완벽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층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나 쉽게 개성된 부디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로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움의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삼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호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방송이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 현대불교신문은**
 -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은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